고규홍의 '나무생각'

긴 설렘과 오랜 기다림

태풍 '란'에 발목이 잡혔다. 일본 전설에 나오는 야쿠시마 삼나무를 찾아보기로 했던 답사 일정 전체를 취소하게 됐다. 깊어 가는 가을에 찾아온 태풍이 마침 야쿠시마 지역을 지나는 바람에 교통이 막혔다. 지난봄에 일정을 조정하고, 긴 설렘을 간직한 채 오래 기다렸던 일정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태풍이 잦은 지역이라는 걸 모른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태풍은 예년에 비해 좀 늦었다.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다.

답사가 예정됐던 조몬삼나무는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의 배경으로 나오기도 했던 야쿠시마 섬의 산꼭대기에 있는 큰 나무다. 일본인들은 이 나무를 조몬 시대부터 살았던 삼나무라 해서, '조몬스기'라고 부른다. 나무의 나이는 공식적으로는 7200년이라 하지만, 일본인들은 흔히 8000년 된 나무라고 한다.

그러나 과학적인 조사에 따르면 대략 2500년 전후의 수령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령이야 어떻든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이 삼나무는 일본인들에게 중요한 나무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나무다.

크고 오래된 나무를 찾아보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돌아보면 나무를 찾아다니는 모든 길이 그렇다. 한 그루의 나무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봄에 돋아나는 새 순의 상태를 살피는 걸 시작으로, 꽃 모양과 꽃송이의 숫자를 헤아려야 한다. 꽃 지고 여름 되면, 여물어 가는 열매의 상태를 살펴야 하며, 가을에는 잎 위에 오르는 단풍의 상태를 톺아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온 잎을 떨군 겨울의 상태까지, 계절마다 다르게 드러나는 나무의 모든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 게다가 나무에 따라서는 해거리도 하기 때문에 이듬해에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해서 관찰해야 한다. 결국 이태 정도를 살펴봐야 겨우 한 그루의 나무를 '좀 봤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무를 찾아가려면 때를 잘 맞추어야 한다. 기상도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또 현지 사정도 돌아보아야 한다.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단풍 예상 일지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그건 평균적인 예상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찾아보아야 할 나무의 단풍 시기는 기상청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긴 설렘과 오랜 기다림 끝에 곱게 물들었을 단풍을 기대하고 나무를 찾아가지만, 아직 단풍이 덜 들었을 경우도 있다.

수백 년을 살아온 큰 나무들의 경우는 더 그렇다. 나뭇잎에 단풍이 들려면 나무가 제 몸 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모두 덜어내야 한다. 부피가 큰 나무일수록 몸 안의 물을 덜어내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결국 기상청의 단풍 예상 시기를 훨씬 지나서야 겨우 단풍 빛깔이 올라온다. 대략 5백 년 정도 된 큰 나무들의 경우, 평균적인 젊은 나무에 비해 열흘이나 보름 정도 늦은 편이다. 그 와중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단풍이 제대로 들기 전에 낙엽이 되어 떨어질 수도 있다. 한 해 내내 손꼽아 기다리던 단풍 든 모습을 관찰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봄꽃 답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개나리 벚꽃 예상도를 참고해 현장을 찾아가지만, 단풍이 그런 것처럼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꽃이 채 피어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때마침 봄비가 장하게 내리기라도 한다면 애써 피어난 꽃들이 낙화를 서두르곤 한다. 꽃이든 단풍이든 다시 또 삼백예순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 나무를 보는 건 결국 그리움을 쌓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살아 숨 쉬며 움직이는 나무의 생명을 수학에서처럼 정확히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 살아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체이든 주변의 여러 요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곁에 있는 다른 생명들의 조건에 따라 상황은 늘 달라진다. 달리 말하면 나무는 여느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바람과 별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체다.

어떤 대상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긴 설렘과 오랜 기다림을 수반해야 하는 건 꼭 나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터. 사람도 마찬가지다. 간절한 그리움으로, 긴 설렘과 오랜 기다림을 쌓은 뒤에야 누군가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법이지 싶다. 진정한 만남은 그때 비로소 결실을 이루리라.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에 힘 모아야

김 수 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

국내 인구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8년에 14%, 2026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old Aging'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Silver Aging' 고령층과는 다른 삶의 방식, 정서, 신체적, 사회적으로 젊은 소비 패턴을 선호하며, 여가 및 건강 관리,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고령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구강 질환의 증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건강보험공단의 다빈도 상병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발생 질환 상위 20가지 질환 중, 치주 질환 2위, 치아 우식증 7위,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이 12위를 차지하는 등 구강 질환은 노년층의 고질병으로 'Gold Aging'을 원하는 현대사회 고령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증가한 구강 질환에 의하여, 치과 의료 수요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 임상 의료 수준은 전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 의료기기 산업 및, 치의학의 연구 분야에서는 이와 상황이 상이하다.

국내 의료 기기 산업의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중 1위는 치과용 임플란트, 3위는 귀금속 합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기업 30위 안에 치과용 기기 및 재료 기업이 4개나 포진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연구 및 개발은 대학 또는 일부 부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실정이다. 또 전국적으로 1000명 정도의 대학원생과 전임 교원들이 세분화된 치의학 연구를 모두 수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치의학 분야의 정부 지원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 의료기기 시장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치의학 분야의 정부 투자 보건 의료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2.3% 정도에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치과 의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치의학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진행하고, 임상 치의학 중심으로만 발전하고 있는 기형적인 치의학 연구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조정하며, 다양한 연구 분야의 통합, 임상기술의 개발, 산업화 기틀 마련을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한국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수 요구 사항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설립의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설립 위치를 둘러싸고 여러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광주에는 치과 산업 단지, 소재 부품의 활성화 등 충분한 인프라가 조성돼 있으며, 유관 연구비 수혜 실적, 체계적이고 풍부한 연구 인력 양성이 가능한 대학(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지역 경제 발전 정책 방향 및 지원과 의지 또한 확고하다.

이제는 중앙의 지원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광주시 등 지자체와, 지역 내 유관 관계자들이 먼저 기반을 조성하고 그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세계 치과기기·용품 산업 시장의 규모는 235억 달러 이상으로, 연평균 5.9% 내외의 급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생산 판매 최상위를 이끄는 기업들의 주생산 제품들은 이에 상응한 치과용 기기 및 재료 품목군들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광주 유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광주에 들어서면 광주시가 계획하는 '미래형 치과 벨트 구축 사업'을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며,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치과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기 고

문화산업의 기초,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류 진 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첨단융합TF 팀장

애벌레가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라바'가 있다. 낡은 집이 사라지면서 보금자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린 애벌레들이 함께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먹을 것을 놓고 티격태격 싸우는 이야기다. 옐로우, 레드, 브라운, 블랙, 핑크가 그 주인공들이다.

라바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좋아한다. 인도네시아, 태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16개 나라 아이들도 좋아한다. 수출했다는 말이다. 라바는 문구, 완구, 의류, 식품, 서적으로도 출시되었다. 문화콘텐츠가 돈이 되었다는 말이다. 라바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09년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WAF·Web Animation Festival)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고급 빵집에서 빵들은 서로 선택을 받으려고 한껏 치장(토핑)을 하는데 오븐에서 잘못 구워진 못생긴 빵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처지에 놓인다. 이때 천재 이발사 브레드가 기상천외한 헤어 스타일로 맛있게 꾸며준다. 2016년 WAF(와프) 대상을 받은 '브레드 이발소'다. '브레드 이발소'는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에서 캐릭터와 베이커리 제품을 활용하여 대상과 1억 원의 상금을 받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개최한 '도전! K-스타트업 2017'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또한 머핀 전문점 '마노핀'과 귀여운 캐릭터로 컵케이크를 만들기도 했다. 콘텐츠가 산업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이다.

WAF(와프)는 올해 13년째다. 시작할 당시에는 첨단 영상, 애니메이션이란 말이 낯설었지만 이제 문화산업은 21세기 성장 동력이다. 광주가 전국 최초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 시작을 했다. 그리고 WAF(와프)는 문화산업의 출발점이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만화만 본다'며 꾸지람을 들었던 만화가 산업의 기초가 되었고, 만화를 움직임(동영상)으로 바꾼 애니메이션은 실속 있는 산업이 되었다. 게임 또한 어느 굴뚝 산업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대다.

만화(웹툰)와 애니메이션은 아무리 어려운 학문도 알기 쉽게 바꿀 수 있다. 만화(웹툰)와 애니메이션은 가르침(교육)에서도 꼭 필요하고, 게임은 의료와 군사에서도 그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하는 만화(웹툰)와 애니메이션이 우리 생활에도 깊숙하게 자리했다는 말이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소리에 잠을 깨고, 스마트폰을 쥐고 하루를 보낸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고,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은행 일을 본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이 든다. 스마트폰은 몸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 스마트폰의 세상을 열어주는 게 '웹'이다. 웹은 이미 우리 생활이고, 떼래야 뗄 수 없다. 그 웹의 한 축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맡고 있다.

과학에서 뛰어난 전문 분야를 양성하려면 기초 과학 활성화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기초 과학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자주 말한다. 문화산업에서도 뛰어난 콘텐츠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만화(웹툰)나 애니메이션 같은 기초 과정의 발굴과 양성 그리고 투자가 늘 아쉽다.

광주는 이미 웹의 기초를 닦고 있다. 만화(웹툰)나 애니메이션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 2017년 와프는 151개 작품이 응모하였고, 심사를 거쳐 18개 작품이 수상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박솔의 '도서관 속의 빨간문'과 학생부분 대상을 받은 서평원의 '로드킬' 등 18개 작품은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인 애니박스(대원방송 운영)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가능성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뜻이다.

더 짜임새 있는 문화산업의 방향을 정해서 만화(웹툰)와 애니메이션의 출발이자 중심지인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社 說

고향세 도입해 농어촌 지자체 소멸 막아야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고향기부제(일명 고향세)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은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돼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한국정보통계에 의뢰해 지난 8월 3~7일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고향세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평균 기부 의향 액수는 27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지방 재정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향 주민 가운데 고향에 기부 의사가 있는 78.3%가 소득세의 10%를 기부할 경우 1조6000억 원이 지방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 기부 의향 액수 27만6000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3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의 10%를 기부할 경우 전남에는 2089억여 원이, 평균 기부 액수 27만6000원을 적용했을 때는 3646억 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향세 도입에는 국회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만 10건에 이르고 동참한 의원만 135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부나 납세 형식, 기부자 범위, 대상 지역, 답례품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고향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상당수 지자체가 수년 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을 살리는 묘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이낙연 총리는 관련 법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고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

전두환 회고록 3권도 왜곡투성이라니

허위 사실 게재로 유통·배포가 금지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에 이어, 3권도 5·18 관련 특별법과 재판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 3권은 644쪽인데 이중 3분의 1인 219쪽에 걸쳐 5·18 재판을 문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씨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과 광주 지역 변호사 등에 따르면 회고록 3권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며, 집단 발포에 대해서도 차량 돌진 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 오는 시위대에 자위 목적으로 발포한 것"이라며 "애초 '발포 명령자'가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다. 또한 "광주 시위를 진압한 일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5·18재판은 온당하지도 않고 괴상하다고나 해야 할 기이한 재판이었다"면서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주요 작전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 씨 측은 회고록 1권 내용 가운데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33개 부분을 검은색 덧칠로 부분 삭제한 뒤, 회고록 표지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수정본'이라고 적어 재출간했다. 하지만 검은 덧칠을 한 33곳의 앞뒤 문장들은 왜곡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 유통·배포를 금지한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5·18기념재단과 지역 법조계는 이참에 회고록 3권의 허위·왜곡 부분을 신속히 취합해 유통·배포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 지적한 문구를 삭제한 회고록 1권도 전체 문맥상 여전히 왜곡투성이인 만큼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회고록 3권은 우리의 사법체계를 부정한 만큼 법무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無 等 鼓

광장 속의 차량들

광주의 오래된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은 전망이 참 좋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바로 앞 건물 6층에 자리하고 있어 무등산이 한눈에 바라다보인다. 언젠가 베토벤에 들렀던 소설가 윤대녕이 크라이슬러의 음악과 함께 만난 무등산 이야기를 책에 썼던 것처럼, 사시사철 다른 모습의 무등산은 아름답다.

오랜만에 베토벤에 들렀다가 주인장의 자랑(?)을 들었다. 추석 즈음 보름달이 떴을 때 베토벤에서 내려다본 5·18민주광장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것이었다. 구름 속으로 들락날락하는 보름달과 환하게 밝혀진 전당 건물, 평화롭게 거니는 사람들, 그리고 분수대가 어우러진 풍경은 외국 광장과 비교해도 부러울 게 하나 없더라고 했다. 그날 베토벤에 있던 손님들이 야외 테라스로 나가더니 광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광장'은 도시의 랜드마크다. 벨기에 브뤼셀의 그랑 플라스(La Grand Place)가 대표적이다. 빅토르 위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극찬했던 이곳은 여타 유명 광장에 비해 넓지는 않지만 시 청사 등 고딕·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름답다. 광장으로 이어지는 골목골목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 등장하는 스페인 광장 역시 인기가 많다.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내려오는 장면에 나오는데 바이런·괴테 등 예술가들이 로마에 머물 땐 이 광장 주변에 집을 얻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5·18민주광장을 오갈 때면 눈에 걸리는 게 있다. 광장에 주차된 자동차들이다. 행사 중에는 짐을 옮기는 등의 이유로 잠시 차를 댈 수는 있겠으나 행사가 없는 날에도 붙박이처럼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 최근엔 광주시 동구청이 '주차 금지' 플래카드까지 걸어 두었지만 그 플래카드 바로 앞에 차를 대는, 참 슬픈 현실이다. 주말엔 더 많은 주차 차량이 보인다. 처음이야 망설이기도 하겠지만 '남들도 다 하는데'라 생각하면 광장은 점점 자동차로 잠식될지도 모른다.

유럽의 어느 공원을 연상시키는 '하늘 정원'은 요즘 '인기 명소'가 됐다. 동명동엔 새로운 문화가 꿈틀댄다. 그 중심에 광장이 있다. 광장을 광장답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의 몫이다.

/김미은 문화1부 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